



제주 마을서 즐기는 색다른 힐링여행



제주 마을에서 열린 에코파티 모습. 사진=제주관광공사 제공



제주 핫플레이스 (56) 에코파티

마을주민이 직접 마련한 프로그램
유수암리·신흥1리·신흥리서 진행
자연·생태·문화·로컬푸드 등 체험
가족 단위·교육여행으로 인기몰이

제주의 마을 속으로 들어가 숨겨진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에코파티'는 제주의 대표 마을 여행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진심 담긴 '마을이장님'의 환영사를 들을 수 있고, 마을에서 나는 제철 특산물 맛보고, 마을 주민이 들려주는 마을 이야기를 들으며 소소한 힐링을 맛볼 수 있는 여행지다.

'에코파티'는 관광객들을 제주의 마을, 지역 곳곳으로 초대해 자연·생태·문화·로컬푸드·주민해설 등 색다른 여행경험을 제공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하는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대표 상품으로 지난 2016년부터 선보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봄시즌에 이어 10월부터 진행된 가을판 에코파티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에코파티는 가족단위 여행객들이 주 고객이다. 어른들에게는 도심에서 벗어나 잠시 자연에서 쉼을 즐기고, 아이들은 생태자연을 배우는 기회가 된다. 제주를 여러번 여행해본 여행객이나 도민들에게도 제주의 알려지지 않은 마을 속으로 들어가 주민과 함께하고 마을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하는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해외로 여행을 떠날 시간이 부족하거나 혹은 제주에서 새로운 여행을 원하거나, 조용한 '나홀로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에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에코파티는 짧은 시간, 혼자도 참여할 수 있을뿐더러 마을주민이 직접 투어를 이끌어가고 마을 안에 남들이 가보지 못한 새로운 스팟도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참가자들이 기뻐하고 마을 어르신들이 흐뭇해지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힐링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에코파티'는 교육여행 특화프로그램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제주관광공사는 2일 개최되는 에코파티 컨셉을 제주의 마을체험과

생태자원 및 마을공동체 등 학생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했다.

유수암리 에코파티(오전 10시~오후 5시)는 전문해설사와 함께하는 항공유적지 역사 탐방,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목공체험, 고구마 캐기 체험 등이 진행된다.

신흥1리(동백마을) 에코파티(오전 10시~오후 2시)는 비누 만들기 체험, 화전만들기 체험, 동백마을의 역사와 동백기름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이야기와 함께 동백비빔밥 시식이 준비될 예정이다. 에코파티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한 마을 버스킹 공연도 열린다.

신흥리 에코파티(오전 10시~오후 2시)는 지역해설사와 함께 걷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제주밭갈길 걷기와 전통 마을체험인 짚줄농기, 손수건 염색을 체험 등이 진행된다. 또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짚줄을 활용한 줄다리기, 줄넘기 등 가족운동회와 고기국수, 빕떡 및 육두 등 제주의 전통 음식 시식회가 열릴 예정이다.

제주관광공사는 내년부터 에코파티 규모를 키워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40~50명 단위 프로그램 운영에서 회당 200~300명 규모로 확대 추진된다.

오른기자 eioh@ihalla.com

제주바다와 문학 (27) 허영선 시집 '해녀들'



바다로 향하는 제주 해녀들. 허영선 시인은 '해녀전'을 통해 우리 앞에 거대한 위로로 건네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준다.

"어쩌면 우린 모두 해녀의 생 아니겠나"

시인이 호명한 20여명 해녀
이 땅 아픈 역사 살아낸 여인
말없는 물노동으로 삶 증거

예전엔 미처 못느꼈지만, 다시 퍼든 형광 주황색 시집 표지에서 태양이 떠올랐다. 평생 목숨줄 같은 태양을 부여잡았던 여인들이 그 안에 있었다. 제주 허영선 시인의 시집 '해녀들' (2017)이다.

시인은 해녀를 한 명 한 명을 불러내 시로 자서전을 썼다. 그들은 일제강점기 스물 즈음에 지독한 고문을 겪으며 격류의 세월을 헤쳐왔다. 세찬 칼바람과 눈보라치는 해협을 건너 원산, 청진, 일본, 중국,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물질을 나실했다. 뿐인가. 4·3이라는 동굴 속에서 남편 잃고 살아남아 모든 걸 감당하며 혈육의 입을 위해 차가운 물에 몸을 담가야 했다.

'전복 해초 바다 물건 제값 달란 죄/ 악덕 상인 파면하란 죄/ 바다는 우리 밭, 호미 들고 밭갈듯 죄// 물담 위로 난바다 식민의 바람 편향적으로 불 때/ 죄 없이 죄인 된 스물들 소녀회 회장/ 꿈 팔 묶여/ 꿈마저 호송당했습니다' ('해녀 김옥련 1' 중에서)

해녀 김옥련, 고차동, 정병춘, 덕화, 권연, 양금녀, 양의현, 홍석남, 문경수, 강안자... 시집엔 '해녀전-울 틈 물 틈 없어야 한다'란 묶음 아래 시인이 만났던 21명의 제주 해녀 생애가 펼쳐진다. 이 땅의 아픈 역사를 살아낸 그들은 맺힌 가슴을 물질로 풀어내고 있었다. '빠와 빠끼리 악을 쓴다 해도 늙은 무르팍에 일본제 파스 한 장 붙이고' 견뎌냈던 이가 '해

녀 홍석남' 만이겠는가. 해녀들은 '물속 흐린 날만큼이야 하겠나'며 짓물려진 상처를 안은 채 다시 바다로 향했다.

시집 말미에 시작(詩作)에 얹힌 배경을 담은 산문 '그들은 물에서 시를 쓴다'를 덧붙여놓았다. 이 역시 한편의 시처럼 읽힌다. "바다의 그들은 단호하다. 비울 것 비워야 한다. 겨안을 건 겨안아야 한다. 대해에서 그들은 그들끼리 서로의 이름을 불러준다. 그들은 극지의 물 속에서 극한의 노를 부를 줄 안다."

그들이 두려움 없이 '악악한' 물밑까지 잠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시인은 사랑에서 그 답을 찾는다. "사랑을 품지 않고 어찌 물에 가겠는가. 어떤 절박함 없이 어찌 극한을 견디겠는가." 그들은 물에서 온 몸으로 사랑을 밀어붙이며 먼 바다까지 나가 삶을 견져올랐다. 유년에서 청년기를 지나 어느덧 아흔이 이른 그들이었다. 범벅된 땀과 눈물은 바다에 녹아들었고 그들의 나날은 그대로 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없는 물노동으로 보여주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위로를 건네주었다. 어쩌면 우리는 큰 빛을 지고 말았다." 그들이 물에서 쓴 시를 '해녀들'을 통해 받아 적었다는 시인은 우리 앞에 이런 시를 띄운다. '어쩌면 우린 모두/ 해녀의 생 아니겠는가/ 먼바다 사투에서 살아남아 돌아오면/ 해녀의 생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해녀는 묵은 것들의 힘을 믿는다'의 한 구절이다.

전선기자 sunny@ihalla.com

2019년 사계초등학교총동문회 단합체육대회

평소 저희 사계초등학교총동문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신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계초등학교 동문들의 서로의 화합을 다지는 단합체육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회장 이순익

일시 2019년 11월 3일(일) 개최식 10시

장소 사계해안체육공원

■주최·주관 | 사계초등학교총동문회

■연락처 | 회장 010-3699-2984 사무국장 010-5015-2671

사계초등학교총동문회 회장 이순익